

# 4·27 재보선



4·27 재·보궐선거 투표가 마무리된 27일 오후 군수 재선거와 전남도의원 보궐선거 개표소가 마련된 화순군민회관에서 집계원들이 각 읍·면에서 수거된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MB정부 실망·높은 투표율이 갈랐다

### 불법선거·젊은층 '투표열기' 이끈 트위터도 한몫

#### ■ 야권 승리 배경

민주당이 27일 실시된 재보선에서 최고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야권이 큰 집으로서 군소 야당을 잘 아울러 연대를 성공적으로 이뤘을 뿐 아니라 국민에게는 수권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야권연대를 통해 수도권 및 강원도에서 야당성향 표 반산을 막았을 뿐 아니라 연대 과정에서 통 큰 양보를 보임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번 재보선 승리의 1등 공신은 역설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다. 여권의 정책 및 정치실패에 실망한 국민이 야당에 표를 몰아준 것이다.

이번에 한나라당은 경남 김해에서 간신히 1석을 얻으면서 체면을 지킨 면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강세지역인 강원도와 분당을에서 패배하면서 더 이상 한나라당의 텃밭은 없다는 자조 섞인 소리도 한나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유례없는 높은 투표율도 야권의 승리를 가능케 했다. 이번 재보선 전체 잠정투표율은 39.4%로 상·하반기 동시 재보선이 정례화된 2000년 이후 역대 3번째로 높았고, 성남 분당읍과 경남 김해읍, 전남 순천 등 국회의원

선거구 3곳만 보면 43.5%로 동시 재보선 사상 역대 최고치였다.

야권 잡음이 후보로 나서고 여권이 거담적으로 맞서면서 '대선 전초전'의 의미가 부여된 데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이 급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정치권의 '올인'을 불렀고 거기에 유권자들이 호응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선거 막판의 부정부패 논란도 유권자들의 '심판 의지'를 북돋워 야당 심판론으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있다.

이와 함께 트위터가 젊은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불러들임으로써 야권의 승리를 가능케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 여 텃밭서 승리 손학규 뒤엔 광주·전남 전폭 지지 있었다

# 야 대권주자 '1인 독주' 채비

## 급속한 勢쏠림...당내 장악력 높아져 중도 보수까지 지지층 넓혀 나갈듯

적진에 홀로 뛰어든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한나라당을 침몰시켰다. 여당의 야성인 분당을에서 승리하고 대선 가도를 쾌속진주하게 된 것이다.

손 대표는 지난해 10월 전당대회에서 광주·전남의 전폭적 지지로 민주당 대표가 된 야권의 대표적 대권주자. 때문에 광주·전남의 정권 교체 열망과 선택이 한나라당에게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불리는 텃밭 분당을을 뚫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빙의 승부라는 애초 전망과는 달리 손 대표는 27일 개표 초반부터 여유있게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를 따돌리고 민주당에게는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분당을의 민심을 얻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손 대표는 민주당 내 지지를 확고히 하고 당내 장악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뿐 아니라 야권 내에서 정치적 위상이 탄탄해지면서 내년에 있을 당내 및 야권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더욱이 서울 강남과 함께 대표적 중산층 주거지역인 분당을에서 한나라당의 전 대표를 이김으로써 손 대표의 장점인 중도세력으로서의 표 확장

가능성을 입증, 야권의 대선주자로서 날개를 달게 됐다.

손 대표에게 이번 보선의 승리는 향후 정치적 행보에 큰 힘이 될 수밖에 없다. 집단지도체제 하에서 다른 최고위원들의 견제를 뚫고 자신의 색깔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따라서 손 대표는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선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진보세력은 물론 중도보수세력으로도 의연을 확대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손학규의 부상'은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손 대표 진영 합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과 3등분 했던 지역 정치권의 파이가 손 대표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현역 의원 중 손 대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조영택·김재균·김동철·이용섭·이낙연·이윤석 의원 등, 이 외에도 박지원·김영진·장병완·유선호·주승용 의원 등이 이번 선거를 열심히 도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들의 당내 입지가

### 운동권→경기지사→야당대표 대변신

#### ■ 손학규는 누구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70년대 서울대 재학 중 반독재 투쟁을 했던 재야 운동권 출신으로 유신 체제 종식 후 영국 유학길에 올라 옥스퍼드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인하대와 서강대에

서 교편을 잡았다. 그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93년 광명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광명에서 내리 3선을 했으며 당내 소장계혁파의 리더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2002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도 당선되면서 대권주자의 반열에 올랐다.

경기지사에서 물러난 뒤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으나 한나라당의 한계를 지적하며 탈당을 결행, 구여권의 대권 레이스에 합류했으나 취약한 조직 기반에 발목이 잡히면서 정동영 최고위원에게 대선 후보 자리를 내줘야 했다.

2008년초 대선 참패의 상처로 허덕이던 당에 구원부수로 투입, 과도기 대표로서 총선을 진두지휘했지만 본인은 서울 종로에서 패배하고 춘천으로 내려가 2년여 침묵했다. 지난해 10월 전격적으로 전당대회에 나서 조직 열세라는 슬한 불리함을 이겨내고 민주당 대표가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자연스럽게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직 의원 외에 내년 총선 공천을 염두에 두고 이번 분당을 보궐선거를 도왔던 광주·전남의 수많은 정치인은 스스로 논공행상을 하며 의원들과 총선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손 대표의 급부상에 대한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지나친 중도 추수로 민주당의 정

체성이 약화될 수 있고 민주당의 외연 확대를 위해 탈호남을 추구하면서 호남민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 대표의 한 측근은 "대표는 항상 선원해 준 광주·전남을 위해서도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며 "대표는 또 이번 재보선 이전처럼 다시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지원 원내대표의 힘

### 차기 당권 도전 청신호

다음달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4·27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선거 전략을 진두지휘한 것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을 독려하며 분당 읍은 물론 강원, 김해 읍, 순천 등 전국을 돌며 현직 지원에 나서 이번 재보선 승리를 견인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재보선 승리는 그의 행보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의 '투 톱'으로 활짝 공함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차기 전당대회에서 손 대표가 박 원내대표의 측면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손 대표가 호남 민심과 정체성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박 원내대표를 당권 주자로 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친노 인사들과 386의 의원들의 반대도 없지 않아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 원내대표의 기량과 내공은 인정하지만 변화를 원하는 민심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차기 총선을 이끌기에는 2% 부족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재보선 승



리로 차기 당권주자로서 박지원 원내대표의 주기가 급상승할 것"이라며 "하지만 민주당 내부의 반대도 없지 않은 현실이어서 상황은 유동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민노당 호남 첫 국회의원 배출 '환호'

### 국참당 '침울'...유시민 책임론 부상

4·27 재보선에서 야권연대에 나선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민주노동당은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합 예상을 뒤엎고 여유있게 당선되면서 호남에서 최초로 국회 의원의 의석을 확보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계기로 호남에서의 당세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기초 및 광역의원을 당

선시키면서 어느정도 정치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야권연대의 흐름이 지속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1~2곳의 의석을 더 낼 수 있지 않느냐는 기대 섞인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어느 정도 세를 형성한 광주 남구와 여수 등을 차기 총선에서의 야권 연대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국민참여당은 침울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참여당 내부에서는 김해 읍의 패배가 유시민 대표의 한계와 책임론으로 연결되면서 내년 총선에서도 약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참여당 후보가 아닌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이나 민주당 광진업 후보가 나섰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서 국민참여당의 입지는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홈페이지제작은 기본! 모바일홈페이지 까지!**

도메인 호스팅  
홈페이지만 만들면 이 모든것이 무료!

로그인 디자인 컨설팅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 상담 폭주!  
(아이폰, 안드로이드 용)

상담문의 010-2637-9358  
마블아이앤씨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KDB빌딩 1904호

**공무원 대출**

공무원 대출

- ▶ 대상: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 금액: 500만원~8,000만원
- ▶ 금리: 년 5%~
- 대출과다나 연체로 대출이 어려운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개인회생, 신용회복 지원중이신 분 가능

직장인 대출

- ▶ 금액: 500만원~5,000만원
- ▶ 금리: 년 9%~
- ▶ 대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누구나 가능 (신용불량자 제외)

하나 1544-0936 011-705-2230  
등록번호: 2011-3430067-25-5-00009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400-13(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부중개업 등록기간: 대구광역시 대표자: 백영학  
제1금융권이자율(최저)년 5.5%~13%(연체금리 18%~22%) 제2금융권이자율(최저)년 11.9%~33%(연체금리 22%~44%) 제3금융권이자율(최저)년 33%~44%(연체금리 44%)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받지 않습니다.

광주 (062)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061)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02) 454-7722